

철강

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영향 분석

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내용 발표

미 상무부가 1월 11일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의 핵심내용이 2월 16일 발표되었음. 권고안 내용은 1)모든 철강 수입에 최소 24% 관세 부과, 2)12개국(한국 포함)에 최소 53% 관세 부과, 타국가는 17년 수입 기준 100% 쿼터제 실시. 3)모든 국가에 대해 17년 수입 기준 63% 쿼터제 실시임. 미국 대통령은 4월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. 최종 결정은 권고안 중 하나를 택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음.

강관 외 제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

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 분석은 시기상조이나, 강관을 제외한 제품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. 이는 17년 기준 강관 외 제품의 미국향 수출은 생산량의 2.3% 수준으로 낮기 때문.(주: 17년 강관 외 제품 생산 6,544만톤, 수출 2,860만톤, 미국향 수출 152만톤) 따라서 강관 외 제품은 최악의 경우 미국향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하더라도, 내수 판매 확대 및 미국 외 수출 증가로 일정부분 상쇄 가능할 것으로 봄. 실제로 열연강판의 경우, 16년 고율(13.38~60.93%)의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이 14년 121만톤에서 17년 27만톤으로 94만톤 급감하였으나, 동기간 내수 비중 확대(+74만톤) 및 미국 외 수출 증가(+66만톤)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46만톤 증가한 바 있음.

강관사 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

강관의 경우 미국향 수출은 생산량의 35.8%로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최종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.(주: 17년 강관 생산 564만톤, 수출 309만톤, 미국향 수출 202만톤) 영향은 강관사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함. 우리는 세아제강의 경우 타 강관사 대비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봄. 이유는 이미 타 강관사 대비 현저하게 낮은 관세율을 차등 적용 받고 있으며, 미국 내 생산설비(연산 15만톤)를 보유하고 있어 무역규제 강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.

미국의 철강 무역규제 강화는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게는 기회요인 일수도 있음

우리는 미국의 철강 무역규제 강화가 경쟁력있는 철강사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. 이유는 이를 계기로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철강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. 무역확장법 232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철강 설비 가동을 상승에 있음. 미국의 17년 평균 가동률은 약 74%로 추정되는데 이를 80%로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17년 대비 약 37%, 1,300만톤 감소해야 한다는 논리임. 미국의 목적대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, 미국 외 지역에서 그만큼 생산이 감소하면 됨.

다행인 점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이 1,500~2,000만톤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. 즉, 미국이 수입을 줄이는 만큼(혹은 그 이상) 저가의 중국 철강 수출이 감소한다면 글로벌 철강 가격은 현재보다 상승할 수 있어, 경쟁력있는 철강사들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.

철강

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영향 분석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